

제9회 석유세미나 종합토론(全文)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주제발표자

- 李 會 晟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黃 鎬 升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 李 東 圭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

토론자

- 김 중 석 (환경청 대기보전국장)
- 신 의 순 (연세대 교수)
- 이 상 곤 (인하대 교수)

사회 = 李 會 晟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정리 = 金 乾 洽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이 글은 지난 11월 17일 대한석유협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9회 석유세미나에서 진행된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註>

李會晟 = 그럼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도 다른 어떤 파트보다도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서가 이미 배부 되었을텐데, 질문 내용을 기술하셔서 지정토론자의 의견 개진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환경청의 김종석대기보전국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종석 = 우선 제가 세미나를 처음부터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요 내용들이 석유 공급의 추세라든지, 시장추세, 또 환경문제하고 정유사의 당면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환경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와 연관해 가지고 환경청에서 하고 싶은 얘기, 정책방향, 이런 것을 토론에 앞서서 얘기를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도시 대기오염 문제를 보면, 몇가지 오염물질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중요한 것이 아황산가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동절기에는 아황산가스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난방연료가 주로 연탄이라든가 B-C油라든지 또 자동차에서 주로 사용하겠습니다만, 경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황산가스의 주요 오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든다면, 88년말 현재 연탄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가 전체 아황산가스의 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87년말에는 64%까지 점유했습니다마는, 88년말에 연탄이 경유와 석유로 많이 대체되어 가지고 58%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B-C油가 30% 정도, 그 다음에 차량에 의한 경유가 11% 이렇게 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가 연탄과 B-C油 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동절기에는 연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또 역전층이라고 그래서 공기가 겨울에는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기의 유통이 안되고 확산이 더디며 오염물질은 더

많고, 상당히 높게 올라가서 건강이나 재산상의 유해성을 충분히 줄 수 있을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오염도를 항상 발표하여 국민이나 업계에서도 호응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금년도부터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하여 현재 오염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염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한게 2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저께부터 이것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이 일평균 0.15로 아황산가스가 되어 있는데, 어제는 0.164로서 12시간이 계속 됐습니다. 이것이 작년 통계에 의하면, 1월달에는 광화문이 40%가 초과합니다. 그리고 30일중에서 0.15가 넘는 날이 12일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최고치를 보게 되면 3.4배 나오고, 이래서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오염물질이 나와서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산성비, 일반 대기오염의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산성비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오염도가 기준치에 몇배 넘어가면 사실상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지금 가장 가능한 방법은 청정연료쪽으로서 우선 난방연료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자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상당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대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오염문제, 도시 대기오염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의 경우, 우선은 기준이 단기기준과 장기기준이 있는데, 장기기준을 우선 만족 시키고, 그 다음에 단기기준을 만족시키겠다 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연간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0.05ppm이 초과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88년에 연간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보면, 0.064ppm입니다. 연간을 통해서, 연기준을 초과했는데, 같은 해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오염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의 1월달에 보면, 단기기준(하루기준)이 0.15인데 0.15를 초과하는 날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기기준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9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0.064에서 0.05로 낮추는 것을 90년까지로 보고, 일련의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쯤 되면 0.03까지 장기기준을 낮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95년 정도 되어 가지고는 단기기준도 만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관계부처와 업계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대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정연료의 공급확대를 제일 큰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는 잘 아시다시피, LNG(액화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경유도 유향함량이 0.2%로 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경유도 포함시켜서 공급하는 것을 동자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NG는 88년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2톤이상 열공업 시설에 대해서 이미 추진을 했어요. 88년에 1천개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00개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2톤 이상된 보일러가 전체적으로 2,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2,500개는 배관이 들어가는 대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LNG는 아황산가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의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청정연료를 좀 더 확대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대상 시설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려하고 있는 2~0.5톤에 해당하는 보

일러 시설은 청정연료를 쓰는 것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드린 청정연료는 경유가 포함되는 그런 청정연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아파트가 대상 시설쪽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도 일정기간후에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발전시설이 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발전시설은 京仁지방에 있는 것은 92년까지는 청정연료가 사용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 油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 사용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 드릴때 B-C油가 30% 연탄이 54%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연탄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탄사용억제 홍보라고 그래가지고 유흥업소나 이런 곳에 대해서 연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연탄이 국내의 유일한 에너지 자원이어서 홍보를 하다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88년에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약 870만톤이 87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88년에는 820만톤으로 약 6%가 줄었습니다.

동자부의 추계를 보니까, 금년에는 820만톤에서 680만톤으로 약 820만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황산가스도 약 12% 정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B-C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B-C油에 대한 대책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탄은 그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유등의 저유황화는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맺어서 저유황화를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86년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때에 전국적으로 중질유와 경질유의 사용비를 내보니까 B-C油와 같은 중질유 1에 대해서 경질유가 0.87정도의 비율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美國이나 日本을 보니까 그 비가 1대3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소비의 형태가 경질화해서 사용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사용자의 편의나 열효율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경질화함으로써 탈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기오염 대책도 그런 패턴을 따라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때에 동자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몇회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질유의 크래킹 시설이라든지 중질유의 탈황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92년도가 되면, 그 시설이 완공되어 가지고 1대2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대3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9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95년 정도까지는 80,000B/D 정도가 더 추가가 돼서 시설이 확장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추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油價의 조정이 라든지 시설투자도 있겠습니까마는, 환경측면에서도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을 보면, 연료에 관한 대책이 되겠는데, 이 연료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단계가 오면, 주요 도시에 대해서 아황산가스에 대한 총량을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량 규제를 예로 들면, 日本의 東京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하는 도시에서 총량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유종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유류속에 들어 있는 유황합량을 예로 든다면 유류로 한다.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C油로 하든 경유로 하든 LNG로 하든 0.4% 이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량규제를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이 몇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연료를 소비자

가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선택하여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측면에서도 도시 대기오염이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총량을 넘어 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하는 것을 알아내는 측정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해가 언제겠느냐, 경제문제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볼때에 95년 정도가 되면 이런 요건이 만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때, 日本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日本이 1967년 총량규제를 했습니다. 그때 日本의 공식적인 GNP를 보니까 국민소득이 5,000달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국민소득이 5,000달러 정도로 되는 것으로 보고, 또 주요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울을 예를 든다면 5,000달러가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볼때, 탈황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여건이 이랄까 이런 것인데, 油價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연료를 우리가 쓸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오염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유회사나 LNG 회사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저희들 시책에 맞춰서 LNG 공급이라든지 정유공급에 협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 대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몇년 동안 도시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會晟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황산가스의 오염문제, 그 다음에 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정연료 공급계획,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총량규제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연세대 신의순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신의순 = 3시간여에 걸쳐서 많은 내용들이 발표되어 상당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동안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요약해서 그것을 석유산

업과 연결지를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에너지시장의 환경이 70년대 이후에 3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초에 1차오일쇼크가 나오기 전에는 석유값이 싸았기 때문에 그때는 비용이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1차 오일쇼크가 터지고 나면서 에너지 값이 뛰고 그때부터 에너지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오면서 다시 안정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다시 이피전시, 다시 말해서 값싼 비용으로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다가 86년 이후에 세계 에너지 시장이 소비자 시장으로 바뀌고 동시에 안정성 문제가 없어지고 코스트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는 에너지 니즈,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요구에 어떻게 하면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공급을 하느냐 하는 그것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日本 같은 경우에는 1986년부터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가져 오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비용과 안정성 문제를 주로 다루다가 그 이후에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우리가 얘기하던, 정질화나 저유황화나 가스화나 또는 에너지 사용기기의 기술변화에 따른 에너지원의 다양화 이런 쪽으로 많이 인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도 쪽 들어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년전에 에너지관계회의에 참석을 하면 항상 강조되는 것이 에너지 세큐리티 문제인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당분간은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정부나 업계나 또는 일반시민들이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석유산업과 관련해서 하나는 산업으로서의 석유산업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石油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 특별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석유산업의 사회성, 이것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안정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문제이고, 환경문제는 새로이 추가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청의 金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 산업 측면에서의 석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석유산업의 문제와 또 국제적으로도 문제를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국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정유사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다시 말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또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이 유도되어 왔느냐 하는 반성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李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국제석유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류부문 분야에도 진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정유사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유사와도 경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가 필요하냐, 지금 충분히 우리가 경쟁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두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석유업계의 현실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문제에 앞서서 우선 당장 필요한 탈황시설이라든가 또는 경질유로서 전환을, 분해 시설, 이런 당장 시급한 시설을 투자하기 위한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우선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왜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느냐, 우리나라 정유업의 역사가 20년이 넘는데 아직까지 정유업이 그러한 상태에서 헤매고 있느냐, 물론 그동안에 정유산업을 정부에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80년과 81년에 거의 1,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美國은 70년대말에 원유시장의 규제 철폐를 통해서 정유업계가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美國에서 정유업계에 대해 특별세금을 걷은 적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나라는 큰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제적으로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여력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80년과 81년에 이만큼 국내업

“

정유업계에서 지금 필요한 자금이 없는 상태인데, 남은 길은 정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계 스스로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격을 자율화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

계에서 손해를 보았으면 손해 본 것을 정부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석유산업이 가지고 있는 세가지 측면 중에서 두번째 안정성 또 국가기간 산업으로서의 석유산업을 강조했기 때문에, 규제를 했다면 그러한 목적을 위한 손해를 그후에 경기가 좋아진 다음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정부도 생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日本에도 그러한 정책을 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믿는다면 정유업계의 평균 수익률이 제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노말프로피트, 다시 말해서 투자를 통한 적절한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례없이 석유사업기금을 대량으로 징수했기 때문에 그 사업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소비자 잉여나 또는 생산자의 잉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둘중에 누군가에게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생산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가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石油 에너지 시장이 불안할때 그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석유사업기금을 징수했다면 지금과 같이 그러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는 그 기금을 줄이든지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텐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비울날 대비해서 계속 누적하면 좋겠습니다만, 정유업계에서 지금 필요한 자금이 없는 상태인데 생산자 잉여를 그런 식으로 누적해 놓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

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정부에서 필요 자금을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계 스스로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격을 자율화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없고, 지원할 의사도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자율화를 택하는 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율화해서 하루 아침에 전면 개방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단계적으로 자율화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또 필요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석유업계에서 두가지 문제가 가격자율화하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의 철폐라고 하는 두가지 이슈가 제기됐습니다만, 이에 어떠한 순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격자율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규제의 철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격자율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유업계의 수지가 맞게 되면, 다시 말해서 투자자금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우리가 진입장벽이 철폐될 경우, 경제원론적으로는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비용이 인화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이 촉진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합니다만, 정유산업의 경우에는 아직 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고도의 자본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가격 변화가 심하고, 수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급격한 불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불황에 빠지면 石油 제품은 고정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유산업간의 가격경쟁을

통해서 파멸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게 되고, 결국은 그 경쟁을 통해서 몇개의 정유사가 시장을 떠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막대한 투자를 한 우리 산업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의미에서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또 하나는 새로운 기업이 정유산업에 참여할 경우에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습도입효과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용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유 도입선에서도 그렇고, 또 판매망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잇점이 있을텐데, 그러한 것을 외국의 정유업체나 또는 외국의 산유국과 합작을 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은 않지만,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에 그래도 이만큼 석유업을 키워왔는데, 그것이 외국 자본에 의해서 잠식당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가격 자율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문제는 바람직하지만, 신규참여를 완전히 개방한다고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폐해가 있는 만큼 그러한 폐해를 사전에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李壽晟 = 지금까지 에너지 문제의 개념변화에 관해서 말씀을 하였고, 그것을 산업성의 측면과 그 다음에 사회성의 측면에서 보았을때, 산업성 측면에서의 국내적 요소와 국제적인 요소를 구분해 보았을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쟁적인 석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국내적 요소,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고 하시는 요지의 토론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이상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상곤 = 우선 여러가지 국내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한데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토론자로서 환경문제가 에너지 이용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는 두가지인데, 비단 석유산

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급변기에 여러가지 여건 변화를 맞아 고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환경문제까지 갑자기 대두되어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환경문제의 대두가 여타 자기 몫 찾기 같은 사회 문제화 경향이 높아가고 있는데, 제가 평소 생각했던 환경문제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컨드 웨이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웨이브는 60년대말과 70년대초에 선진국에서 공업화가 한창이던 시절, 그때는 산업공해라든지 생활공해같은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것이 제 기억에는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이크로 국제적인 무역이었던것죠. 그리고 글로벌 하계는 제3세계의 인구문제, 그때 연구라든가 분위기를 주도했던 그룹들도 생태학자들하고 인구학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춤하게 된 것이 70년대의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오히려 관심은 에너지 고갈성,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이라든지 정책입안자들은 오히려 환경문제보다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주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갈성 자원에 대한 염려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완화된 80년대 중반을 넘어서 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다시 말하면 환경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물론 환경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로 어떤 이슈가 중점이 됐느냐 하면 글로벌한 이슈, 소위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기상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88년 이후에 선언문 채택 같은 것들, 작년 이후에 여러가지 의정서라든가 선언문 채택 같은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러가지 경제 사회의 전환기적인 여건과 거기다가 환경문제하고 뭉뚱그려서 우리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원 수질오염이라든지 골프장의 농약 문제라든지 CO₂, 온실 효과라든지 산성비 같은 것이 모두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

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들이 환경문제로 취급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배출자하고 피해자간의 보상문제가 부각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는 소득분배에 취급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생태계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는 국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온실효과에 대해서 아까 추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들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실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불원간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제한, 국제적인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 문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온실효과 때문에 에너지 공급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든가 화석연료를 기피하고, 비화석연료로 가야되느냐 하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방향 전환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청의 김국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공해 처리문제도 우선 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사회 분배면에서 보았을 적에 공해 방출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의 부산물로서 나오는 것인데, 경제활동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고, 동시에 거기서 방출되는 공해의 피해가 어떤 특정한 계층에게 집중될 경우와,

두번째 경우는 경제활동의 혜택이 마찬가지로 어느 계층에게 집중이 되고 그렇지만 공해의 피해는 골고루 피해를 나누어 갖는 경우,

세번째는 혜택도 골고루, 공해로부터의 피해도 골고루인 경우, 공해 처리의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1, 2, 3순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행히 에너지산업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정책에서 두번째 아니면 세번째, 또 다른 산업활동에 비해서 두번째, 세번째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석유업계나 동자부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미래 지향적으로 대처하는데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온실효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추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부분은 약하기로 하고, 말씀드린대로 산성비에

대처는 적극적으로 해야하되 온실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토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몇가지만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진입 자유화에 대해 추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개의 이론은 저로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석유산업의 공공적인 측면, 방위산업 측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전개를 해주셨으면 어떠셨을지, 그리고 수직결합에 대해서 보면 분명히 석유산업에는 이커너믹 이스케이프가 있습니다. 한데 거슬수준에 상대적인 낙후라든가, 리스크 부담을 안고 개인 기업이 들어가서 상류부문에 진출을 해서 이커너믹 이스케이프 잇점을 향유하는 것이 통상일텐데, 어차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일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 부담인데, 그렇다면 이커너믹 이스케이프에서 나오는 잇점을 기업과 국민이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지, 그리고 추원장님이 발표해 주신것이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느낌이었습시다.

그 다음에 黃부회장님의 발표는 아주 포괄적으로 잘 정리·분석해주셔서 제가 석유산업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꼭 도움이 됐습시다. 그리고 해외시장의 여건변화의 4가지 중에서 환경문제 대두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경문제의 대두와 석유산업에 대한 영향 그와 같은 영향이 궁극적으로 세계 석유시장에 어떻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석은 없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한 후에 석유시장에서의 변화는 우선 석탄이나 화석연료의 수요가 감소될 것이고, 가격도 감소가 되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미래 상황을 오히려 우리가 역이용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담 경감은 정유시설 고도화에 투자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黃부회장님이 발표하신 중에서 국내 석유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石油수요의 급증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반박이 됩시다마는 국제적인 환경문제의 대두라든가 국내의 환경 규제의 강화같은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석탄, 石油의 수요가 중장기적으로는 감소하지 않

“

환경문제에 있어서 산성비는 특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정유업계나 동자부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는데 대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

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시설의 증설 같은 그런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수송 체계 개선에 대해서 석유산업의 당면 과제이기 보다 동자부와 정부의 여러 부처하고 관련된 과제 같습니다.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을지, 우선 착수를 하기 전에 부지확보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발이 묶이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기타 대 정부 건의 같은 것들은 코멘트를 못드리겠는데, 한가지 거기에 대한 것 중에 어떤 쪽에는 공공성을 강조하시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줘야 된다. 저렇게 지원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떤 쪽은 사기업의 수익성을 강조하셔서 수익성이나 공공성을 넘나들면서 석유산업의 유리한 조건만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막연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국장님께서 짧은 발표를 컴팩트하게 석유산업의 현황과 앞으로 석탄 정책의 미래에 대해서 해준 것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면은 정책이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토지 정책이 이와같이 미래지향적이었다면 올해 같이 시끄러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수요 공급안정뿐 아니라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정책적인 강조가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데 몇가지 의문나는 점은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석유산업이라든가 다른 에너지산업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강화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 사회 움직임이라든가 경제 운

용 방향은 자율화 방향으로 가는데 유독 동자부 행정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환경청에 여쭙 봐야 될 텐데, 환경이라든가 안전·품질 기준의 강화로 환경 투자에 대한 강화, 또는 지원이라든가 규제로서 환경문제를 다루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오히려 공해권 같은 것을 인정해 주시고 공해권의 가치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의 가치가 증권처럼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게 해서 공해의 감소 기능이 시장기능에 연결되게 그런 식의, 물론 구체적인 시책은 개발이 현재 단계에서는 쉽지가 않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세우셨으면 그것도 생각해 봄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會晟 = 감사합니다.

먼저 플로어에서 질문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魯義孝 = 극동정유의 魯義孝(極東精油 제품개발부 연구개발과)라고 합니다.

여러 연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 중에서 조금 소홀했던 것 같은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日本의 경우에는 1985년 通産省 석유관계 소심의위원회에서 석유제품의 부분적인 수입자유화가 되면서 석유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석유산업 활성화 센터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석유사들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R&D 쪽에 치중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동자부李國長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동자부에 그런 소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또 나아가서 침체된 석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 계획은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이 없다면 앞으로 2000년대에는 점차적으로 첨단산업 내지 연구개발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석유사 자체의 R&D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몇가지만 여쭙 보고 싶습니다.

李會晟 = 플로어에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하시는 동안에 아까 이상곤교수님께서 몇가지 코멘트를 하셨는데 그 점에 관해서 우선 黃부회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죠.

黃鎬升 = 정부에 건의하면서 국가의 공공성을 들먹이고 체질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사기업으로서 이익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증설문제라든가 고도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투자가 들어가기에 어느 정도 사기업의 이윤도 보장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어디까지나 정유사업은 당장 밀진다고 문단을 수 없고, 우리 국가의 안보적인 측면 또는 공공적인 측면 여러가지 면에서 이것은 도저히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안 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보면 환경문제와 관련 석유부문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강화에서 이 난을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 갔는데, 이것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초저유황유를 만들어야 된다는 탈황시설을 해야 된다는 여러가지 규제가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공해 방지라고 하는 것은 코스트가 많이 붙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내는 정유업체도 방제 코스트를 일부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증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석탄이라든가 石油가 무공해

천연가스라든가 원자력이 조금 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겠지만, 당장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유가 자꾸 증가한 추세에 수요가 늘어나는데 발을 맞춰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석탄이라든가 石油보다는 천연가스 무공해 연료로 갈 전망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함께 화석연료 소비감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당장에 밀려가지고 앞으로 오래가면 연료를 다른 것으로 대체 연구를 해서 공해가 없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우리 정유업에서 발표할 수가 없고, 앞으로 추세가 그렇다는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급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85년도까지 줄어졌다가 85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설을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송 체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답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나다 보니까 당장 탱크라든가 철도 수송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파이프라인 수송체제를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의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유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약품 식품회사하고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李會晟 = 김종석 국장님께 아까 환경개선을 위해서 소위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요지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점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석 =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시장메커니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보전을 하는 것이 글로벌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온실효과라든가 또 산성비라든지 이쪽에다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같으면 건강면에서도 동절기에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도 중요하

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건강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데는 다소간의 비용을, 저희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응급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수요 공급에 의한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95년 정도되면 저희들이 유종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단계가 오면 지금 말씀하신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李會晟 = 그러면 아까 極東精油에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李東圭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李東圭 = 석유산업도 결국은 기업이고, 그러나 그 특성상 가장 국가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따른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가지 제도적인 각종 규제제도가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정부는 공공성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이윤을 남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활성화되고 기업이 R&D라든가 또 첨단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石油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는데, 특히 장치산업으로서의 석유산업은 제품의 개발이라든가 또 국제적인 수준의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미래에 대응해야 할 예비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아무리 석유산업이 공공성이 따르고 이익이 여러가지 규제되는 처지라 하더라도 첨단산업으로서의 발전방향은 정부도 과감하게 지원을 할 것이고, 특히 R&D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업계에서도 회사별로 연구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도 그것을 적극 지원 할 것입니다.

龔義孝 = 지금 첨단산업하고 R&D에 대해서 향후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나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석유산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볼때 일반적으로 R&D분야가 다른쪽보다 훨씬 뒤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면에서는 석유산업 자체가 R&D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산업에서 R&D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제한된 요소로 기존 정제 코스트를 낮춘다든가 혹은 제품에서의 첨가제 정도를 넣어서 부가가치를 높여 본다든가 하는 상당히 소극적인 분야에서의 R&D에 치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日本의 석유산업활성화센터라고 하는 것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그것이 단순한 석유회사가 아니라, 일단 석유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石油를 원료로 쓰고 있는 예를 들면 엔진이라든가 자동차회사라든가 그러한 관련 산업들이 같이 연대해서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그 석유산업활성화센터의 회원으로 약 72개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日本 정유사 전부가 회원으로 되어있고, 더 나아가서 기계업체, 엔진 자동차회사, 심지어는 파이낸스 관계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쪽도 회원으로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유제품의 부가가치를 단순 제품의 부가가치가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있어서 하나의 원료로서 혹은 시스템 자체도 개발하는 예를 들어서 코제너레이션 시스템 이라고해서 난방을 하는데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같이 석유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패키지로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특이한 것, 또 최근에 韓國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토탈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연구결과라고 하는 것은 국가 시책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해서 지원되는 정도에 불과한데, 어떤 면에서는 석유산업이 저희 나라에서 오랫동안 호황을 누린 업종으로서 지금 정부 시책의 변화에 의해서 이익이 감소되면서 자구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자부에서 주관이 돼서 또 日本의 경우에는 석유연맹이 저희 石油協會같은 것인데, 석유연맹이 주관이 되어서 이러한 활성화 센터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 기구는 1,000명 정도의 방대한 기구입니다. 그러나 상설 인원은 많지 않고, 주로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각 회원사들이 연구개발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배탄올을 가솔린으로 대체해서 쓰는 자동차를 개발하는것을 지금 한 테마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나라도 이 석유산업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나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李東圭 = 대단히 좋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부도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그동안에 특히 석유분야는 장치산업이고 우리 산업구조로 볼때 여러가지 기술수준으로 볼때 국제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오늘과 내일의 차이가 있듯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기술개발을 하고 계속 연구하는 바람직하고, 그 동안에 정부는 동자부연구소라든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특히 석유분야에서는 조금 업계에서 큰 기업체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더 의존이 돼있고, 정부로서는 여타 에너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처지인데, 특히 지역 난방이라든가 자동차 연료의 타 연료 대체 등등 그런 측면의 신 재생에너지 측면을 포함해서 R&D 투자를 갈수록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재원등을 감안해서 어느 부문에다 중점을 두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석유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의 의존보다는 오히려 장치산업이고 첨단기술 산업인 석유산업체가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줄

과 동시에 또 서로 합동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석유사업법도 발전과정에 부응하도록 여러가지 개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도적인 장치로서 방금 질의하신 그러한 뜻을 각별히 참고를 하겠습시다.

李壽晟 = 더 많은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정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유익한 토론과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관해서 공통적인 인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같이 앞으로 풀어야 할 주요한 문제는 막대한 투자소요를 어떻게 조달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로 대두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이러한 석유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조달이 원활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규제 제도의 개선, 그 다음에 지원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로 알고서 다음 세미나의 주요 주제는 이 규제제도의 개선과 그 다음에 지원 제도의 개선이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